가지 도리란 조상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불교를 위하는 삶을 살고, 사회를 위해 희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병들어가는 사람들과 사회를 안타까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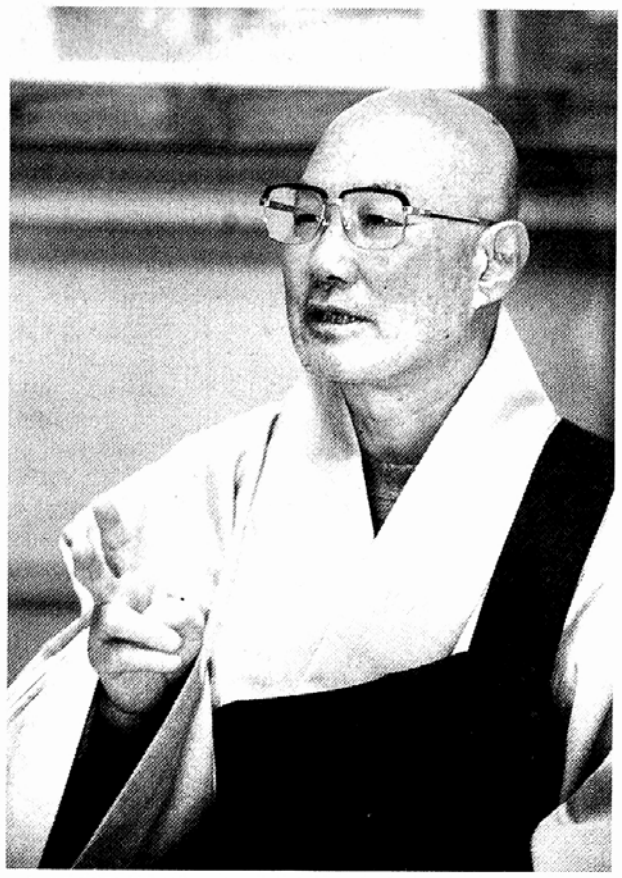
선방에서만 3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40안거를 성만했다는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는 수행자의 길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신다.

"수행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노? 뭐 어려울 거 없다. 수행이다, 수행. 근데 말이다, 수행은 뭐하러 하겠노.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 저 혼자 욕심때문이겠노. 삼천대천세계의 부처님 친구가 돼서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지. 부처님 세상을 바로 알고, 부처님 법을 정법으로 삼아 그 법에 따라 살기 위해 수행도 하는 것 아니겠나."

모든를 위한 수행이지만 따지고 보면 수행은 철저히 혼자서 하는 것이다. 오직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바르게 수행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고, 그러면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도 신망을 얻게 된다. 수행자 한 사람의 몫은 이렇게 크다. 지혜스님이 불문에 귀의한 이래 단 한 번의 사찰소임을 맡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신념 때문이다. 은사이신 동산스님께 받아든 "평생 수행에 전념하라"는 가르침에도, 또 선사로서 선풍을 진작시켰던 은사의 행적에도 모두가 요익중생의 큰 뜻이 있다고 지혜스님은 설명하셨다.

동산스님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되면 도를 깨칠 수 있다며 제자들에게 끈질긴 일념으로 수행할 것을 항상 강조하셨다. 시절인연, 지혜스님은 스님의 그 말씀이 세간에 잘못 이해됨을 경계하신다.

"도라는 것이 기다린다고 오겠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금생이 염려된다면 차라리 꽃을 따고, 다음 생이 걱정스럽다면 부처님 법을 따르면 되는 게지. 시절인연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야. 자꾸 공부하다보면 그것이 무르익어 마음의 전후가 툭 끊어지면서 일념이 되어 마음이 오갈 데 없이 전체가 오직 하나가 되는 거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니야. 깨닫는 순간까지 치열한 수행을 해야만 시절인연이 온다는 말씀인 게지."



◇지혜스님은 지금도 하루에 세시간만 자면서 정진을 한다. 수행자는 죽을때까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셨다.

"눈으로만 공부하려해선 안돼 마음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지 태어날때 본심이 마음자리"

알 것도 같았다. 선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이는 별안간 대나무 치는 한 소리에 도를 깨쳤고, 혹은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도를 깨쳤고, 또 어떤 이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도를 깨쳤다고 했다. 시절인연이란 바로 그와 같은 때를 말함이 아닌가.

"충북 단양 원통암에서 고행정진을 한 적이 있지. 10년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7년8개월만에 나왔지. 원통암에 들어가면서 보리쌀 1말에 좁쌀 3되, 쌀 3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으로 7년을 살았어. 물을 하루에 3도씩 먹고 거의 생식을 했지, 일주일에 죽 한 번 쑤어서 먹고 칡뿌리나 도토리, 솔잎, 뽕잎을 따서 먹고 지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 그런데 6년5개월쯤 지났을 때였지. 봄바람 소리가 한가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귀에서 진통이 왔지. '됐다. 그만하면 네 능력대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가 들렸지. 지금도 그 환희심이 잊혀지지 않아. 힘이 솟았지."

스님은 "부처님을 보라"고 하셨다. 불자들이 항상 부처님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모를 리 없으실 텐데도. 그렇다면 스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부처님과 불자들이 보려고 하는 부처님은 다르다는 말인가.

"부처님을 본 사람이 있노. 세상살이를 마칠 때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견성열반이 어디 있는가 말이다. 밥 먹고 자는 것이 전부요, 내놓을 것이 없으니 일체유심조다."

선사들은 종종 본질을 에두른다. 아무리 배고파해도 절대로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 그저 밥 짓는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할 뿐. 당장 배고픈 사람들은 밥을 줄 사람을 찾는다. 선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호령을 내린다.

"물 한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 무엇을 담겠는가. 윤회와 번뇌는 바꾸기가 쉽지 않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오기 힘든데, 살아 있을 때 마음으로 살아야지, 몸뚱아리로만 살아서야 되겠나. 그릇의 크기가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던가.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크게 된다면야 세상 일 무엇이 어렵겠나. 그릇이 크고 작고는 깨달음의 깊이에서 분명 차이가 있지. 그릇의 크기는 바로 마음 크기야. 마음을 크게 하려면 마음자리를 봐야지. 본래 태어날 때 본심이 바로 그 마음자리야. 그렇기에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선사들은 누누이 강조한 거야."

마음자리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고 여쭈었다. 스님의 대답은 단 한 마디, '하심' 이었다. 그리고 하심은 인욕에서 생긴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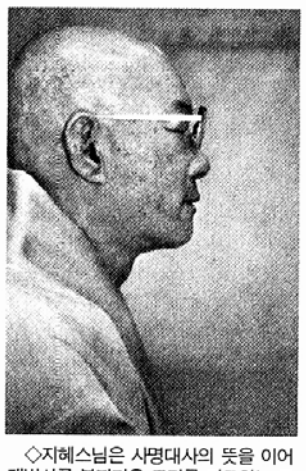
"하심 자체가 부처자리지. 그 자리에는 아무 것도 없어. 견성성불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것인가. 견성한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기 안에는 광명천지가 있지. 깨달음은 오직 하심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야."

지혜스님은 지금도 하루에 세 시간만 자면서 정진을 한다. 전보다는 힘이 달려 좌선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오매불망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수행자는 죽을 때까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부동했다. 그래서인지 스님들의 뼈를 깎는 수행정진이 없고서는 불교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신다. 스님의 말씀 끝에 화제를 돌려 불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청했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봐. 눈으로만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돼.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겠나,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전부야. 나는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어. 말한 것도 없고."

가벼이 들을 요량으로 청했던 말씀이 화두로 꽂혔다. '말 한 것이 없다'는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말씀이 불자들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라는 막연한 짐작 외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밀양 대법사라는 곳에 60년을 넘게 수행해 온, 수행자의 길만을 오롯이 걸어온 한 스님이 계신다는 것과, 대법사 일주문을 나서더라도 발길 닿는 곳 어디든 대법사일 것이라는 느낌. 지혜스님은 그렇게 거기에 계셨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혜스님은 사명대사의 뜻을 이어 대법사를 불자다운 도리를 가르치는 도량으로 가꿔나가고 있다.



원욱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심원스님

심원(尋源)스님은 내 행자도반이다. 견성암 행자실에서 처음 만나 동학사 강원을 거치며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남은 날도 함께 할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심원스님은 한 마디로 공부벌레다. 내 생전에 그처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본 적이 없다. 그것도 학문으로서의 공부를 하루도 쉬지 않을 뿐더러 평소에도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좌선수행에 큰 비중을 두는 불립문자의 선풍(禪風)으로 볼때 결코 흔한 모습은 아니다.

행자시절 우리가 한창 염불을 외우고 있을 때도, 염불숙제 다해놓고 심심하다며 출가할 때 묻혀온 영어단어장을 들고 아궁이 앞에 앉아 들여다보기 일쑤였다. 강원에서도 스님은 하루에 단 몇 줄만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어디선가 관련서적들을 구해 보면서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멀리 그리고 깊이 공부를 했다.

그 무렵 스님과 나는 상구보리가 먼저냐, 하화중생이 먼저냐의 문제로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스님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실천돼야 한다고 했다. 하화중생을 외면한 상구보리만의 추구는 불완전한 것이며, 깨달음의 성취도 어렵다고 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교화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을 때였다. 내 마음도 건사하지 못해 펄펄매는 상황에서 하화중생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지 싶었다. 그러나 심원스님은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자는 상구보리보다 하화중생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상구보리를 강조하는 쪽에선 눈먼 사람이 남을 인도하기는 커녕 구렁텅이에 빠트린다 라는 비유로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세월을 보내야 알아지는 것은 아니며 교학의 기본만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틈만나면 책읽는 '공부벌레'
제주서 강의하며 대중포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냐고 물었더니, 치문반이 겨우 끝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느닷없이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라며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보리를 이루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지 않고서는 보리를 이룰 수 없다, 보리를 이루려는 사람은 대비심으로 동사섭의 보살행을 해야 하며, 이같은 실천이 깊어질 때 깨달음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불교계가 이런 기본 원리와 실천철학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포교할 사람 따로 있고, 진정한 불자는 수행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문제라며 흥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선방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며 기어코 우리를 떠났다.

그리고 심원스님은 몇 해를 운수납자로 사는 듯 하더니 떠억 하니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 그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동안 나는 스님이 좌선이 아닌 방법으로 상구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상구보리만이 우선이라 생각하다 하화중생 쪽으로 바뀌어 포교사가 된 것처럼 스님의 생각도 변했다고 여겼다. 한 사람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그 스님에게 투자된 시간은 말 할 것도 없이 엄청나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택한 길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삼보전의 시주물로 이룰 수 있었으므로 자신을 불교계의 지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심원스님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자산을 하화중생하는 곳에 언제 회향할지 궁금했다. 거기에 답하듯 스님은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조계종 교육원에 들어가더니 삼년동안 머물며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강원 교재를 재정비하고 범어교재를 만들며 스님교육에 관련된 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강원에서 확신에 차서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구나 싶어 뿌듯했다. 공부가 끝난 심원스님은 지금 제주도에 머물고 있다. 관음사 포교당인 보현사에서 포교국장을 맡아 정진중이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오랫동안 국내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스님들이 그 빛을 다 밝히지 못하고 작은 암자에 머무는 것에 아주 아쉬움이 많다. 그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그 공부한 것들을 펴야 하건만 여러 장애가 있어 그렇게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인재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심원스님은 20년간 공부해온 것을 멀리 제주까지 날아가 그곳 교양대학에서 그간 자신이 이룩한 세상을 펴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라 여겨진다. 상구보리면 어떻고 하화중생이면 어떠랴. 어차피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데 혼자 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많은 대중들이 가면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니겠는가.

▨ 서울 반야사 주지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산삼 (山蔘)
인연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태백산 대작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 수백일 기도 회향 끝에 얻은 몇 백년된 산삼(동삼)을 현몽을 받고 인연이 되어 불사에 동참하실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의 지극하고 고귀한 기도 끝에 얻은 이 동삼 (산삼)은 뱃 속의 모든 병고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름없는 병마, 사귀로 인한 병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대부중 여러분!
진물인 산삼을 꼭 한번 보시고 인연이 닫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대작 사에 동참하고 병마를 극복하는 인연의 불자를 기다립니다.
출사가 잦으니 휴대폰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24시간 핸드폰을 열어 놓겠습니다.
석 우 합장



019-838-6766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안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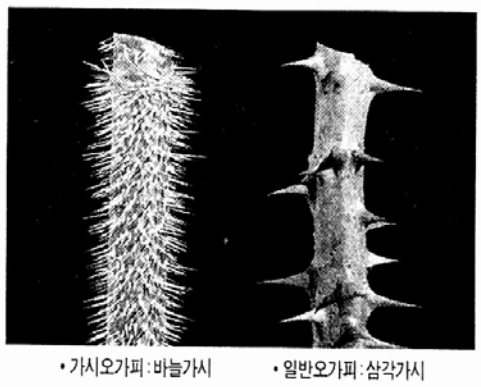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고려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로 만든 제품은 일반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다릅니다.

GOLD 품질보증 1억원 배상책임보험

〈가시모양비교〉



• 가시오가피 : 바늘가시 • 일반오가피 : 삼각가시

오가피 전문회사에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가시오가피 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문의전화 02-517-0809, 5333